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논문의 인용 문헌 분석

Citation Analysis on the Articl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이두영,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오세훈, 광운대학교 도서관

Too-Young Lee, Dept. of LIS Chung Ang University

Se-Hoon Oh, Kwangwoon University Library

본 연구의 목적은 197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나타난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논문의 인용 문헌을 대상으로 저자가 인용한 문헌의 주제, 문헌의 유형, 간행시기, 언어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문헌정보학 연구의 학문적 성장과 타 전공과의 접목 과정을 체계화하는데 있다.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목적

우리 나라가 서양의 문헌정보학을 도입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나라의 문헌정보학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일찍이 1957년 연세대학교에서 최초로 학부과정이 개설된 이후 현재 32개 전국 대학교로 확대되었고 이중 24개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교수직 신분에 있는 연구자가 약 180여명에 이르고 있고, 연구소 및 기타 연구자들을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연구자들

이 우리 학문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1970년 한국도서관학회가 창립된 후 현재는 6개의 전국 규모의 전문학회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해당 학문분야는 물론 타 학문분야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왔으나 문헌정보학의 인용 문헌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 학문분야 문헌의 인용 행태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타 학문분야 문헌의 인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타 학문분야 문헌의 인용이 전체 인용 문헌에 비해 비율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양의 문헌정보학을 도입한지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타 학문분야의

어떤 이론이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과 어떻게 접목되어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장이 타 학문분야와 보다 적극적인 접목과정을 통하여 종합과학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문헌정보학 분야 및 타 학문분야 문헌의 주제, 문헌의 종류, 간행시기, 언어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발전 과정의 구명과 해당 연구자들의 학제간 커뮤니케이션을 밝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논문에 인용된 우리 학문분야 및 타 학문분야 문헌에 대한 주제별 이용 비율을 파악한다.
- (2)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논문에 인용된 우리 학문분야 및 타 학문분야 문헌에 대한 문헌의 종류별 이용 비율을 파악한다.
- (3)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논문에 인용된 우리 학문분야 및 타 학문분야 문헌에 대한 간행시기별 이용 비율을 파악한다.
- (4)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논문에 인

용된 우리 학문분야 및 타 학문분야 문헌에 대한 언어별 이용 비율을 파악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기간은 문헌정보학 학술지가 간행되기 시작한 1970년부터 2000년까지로 한다. 조사 대상 문헌은 조사 대상 기간 안에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다음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다.

(1)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간행, 배포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창간호(1970년)-제34권 제4호(2000년).

(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에서 간행, 배포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창간호(1974년)-제31권 제4호(2000년).

(3) 한국정보관리학회에서 간행, 배포한 「정보관리학회지」 창간호(1984년)-제19권 제4호(2000년).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문헌들의 주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 학문분야는 「한국십진분류법(KDC) 4판」에 근거하여 문헌정보학분야를 10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41개 주제로 세분하여 <표 1>과 같은 문헌분류도구를 작성하였고 타 학문분야는 한국십진분류법 4판에 근거하여 주제를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 문헌에 나타난 인용 문헌을 조사하여 주제, 문헌의 종류, 간행시기, 언어별로 구분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Microsoft Excel 97)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표 1〉 문헌정보학의 영역 및 주제

영역	주제	영역	주제	
서지학	서지학	도서관 봉사	열람·대출	
	저작권법		참고봉사	
	서지·서목		교육·지도	
문헌정보학 일반	이론		이용자연구	
	학회·단체		도서관홍보	
	교육·훈련		일반 사정	
도서관 행정·재정	도서관사	각종 도서관	국립·국회	
	행정·정책		공공도서관	
	기준·법률		아동·특수	
	도서관협력		전문도서관	
도서관 시설	도서관예산		학교도서관	
	건물·설비		대학도서관	
도서관 경영·관리	도서관비품		정보과학	정보학이론
	경영·관리			계량서지학
	도서관평가			전산(기계)화
자료 수집·정리	사서(직)			인터넷
	장서개발	도큐멘테이션		
	도서교환	독서·정보센터 이용	정보미디어	
	도서정리		독서지도	
	서지통정			
	장서관리			
비도서자료				

2 연구 논문의 인용 문헌 분석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논문에 인용된 우리 학문분야 및 타 학문분야 문헌을 대상으로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의 발전과정을 밝히기 위한 예비 연구이다.

해당 연구자들이 인용한 문헌정보학분야 및 타 학문분야 문헌의 주제, 문헌의 유형, 간행시기, 언어별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 대상 기간을 1970년부터 1980년까지로 정하고, 조사 대상 문헌을 「도서관학」과 「도서관학논집」으로 선정하고, 이곳에 기고

된 연구 논문에 인용된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문헌의 인용 분포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조사 대상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들은 총 78편이고, 이곳에 인용된 문헌은 모두 1,865건이다. 그 가운데 우리 학문분야 문헌의 인용은 1,271건(68.1%)이고, 타 학문분야 문헌은 594건(31.9%)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3건의 문헌

중 1건은 타 학문분야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주제별 분포

(1) 문헌정보학영역 문헌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연구 활동을 위해 인용한 우리 학문분야 문헌의 주제는 자료 수집·정리(288건 22.7%), 문헌정보학 일반(194건 15.3%), 서지학(168건 13.2%), 도서관 봉사(146건 11.5%), 정보과학(116건, 9.1%) 등이며, 독서·정보센터이용(20건 1.6%), 도서관 시설(10건 0.8%)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주목한 우리 학문분야 문헌 가운데 자료 수집·정리, 문헌정보학 일반, 서지학, 도서관 봉사 등의 주제가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게 된 원인은 조사 대상 기간이 서양의 문헌정보학을 도입하여 정착하는 시기임을 반증하며, 장서개발, 자료조직, 서지통정, 문헌정보학 이론, 서지학, 도서관 봉사 및 참고봉사 등이 도서관의 효율적 운용(運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다른 주제에 우선하여 집중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독서·정보센터이용(20건 1.6%), 도서관 시설(10건 0.8%)에 관한 주제가 타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원인은 이 시기가 한국 문헌정보학이 정착

되어 발전되기 이전이라는 시대성과 당시에 사서 직원수, 장서수, 예산 등과 같은 도서관 기본 구성 요소 전반이 저조한 실정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타 학문영역 문헌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타 학문분야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순위는 사회과학(325건 54.7%), 역사(147건 24.7%), 언어(43건 7.2%), 총류(34건 5.7%), 철학(25건 4.2%), 종교와 문학이 각각 7건(1.2%), 예술(3건 0.5%), 순수과학(2건 0.3%), 기술과학(1건 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3건의 문헌 중 1건 이상이 타 학문분야의 아이디어를 담은 문헌이며, 그러한 문헌 중 65% 이상이 교육학, 사회학, 역사 등의 연구 결과를 접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문헌의 종류별 이용 분포

정보전달 매체는 여러 가지 메시지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에 적합하도록 진화되어 오늘의 단행본, 학술잡지, 보고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국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어떤 종류의 문헌을 통하여 우리 학문분야 및 타 학문분야의 발견이나 연구 결과에 접근하는지를 비교하려는 의도에서 그들이 인용한 문헌의 종류별 이용 비율을 주제별로 작성하였다.

(1) 문헌정보학영역 문헌

조사 대상 기간 동안에 나타난 우리 나

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학술활동의 매체로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학문분야 문헌의 종류와 그 이용 분포는 단행본(689건 54.2%), 학술잡지(438건 34.5%), 학위논문(42건 3.3%), 보고서(30건 2.4%), 회의자료(25건, 2.0%), 기타(23건 1.8%), 법령집(20건 1.6%), 신문(4건 0.3%)의 순이다.

이렇듯 단행본과 학술잡지의 이용에 집중된 원인은 단행본은 해당분야의 정립된 지식을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고, 학술잡지는 해당분야의 최신 정보를 교환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라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행본은 자료 수집·정리(25.8%), 서지학(19.7%), 문헌정보학 일반(16.7%), 각종도서관(8.9%), 도서관 경영·관리(8.7%), 도서관봉사(7.5%), 정보과학(6.2%), 도서관 행정·재정(4.1%), 독서·정보센터이용(1.7%), 도서관시설(0.7%)의 순으로 인용되었다.

학술잡지는 자료 수집·정리(20.1%), 도서관 봉사(18.5%), 문헌정보학 일반(14.8%), 도서관 행정·재정과 정보과학이 각각 12.1%, 각종도서관(8.7%), 서지학(6.6%), 도서관 경영·관리(5.7%), 독서·정보센터이용(1.4%)의 순으로 인용되었다.

(2) 타 학문영역 문헌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타 학문분야의 이론이나 정보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선호하는 매체는 단행본(429건 72.2%), 학술잡지(58건 9.8%), 신문(36건 6.1%),

기타(26건 4.4%), 학위논문과 보고서가 각각 14건 2.4%, 법령집(10건 1.7%), 회의자료(7건 1.2%)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분야의 경우는 단행본과 학술잡지의 이용 격차가 19.7%인 반면 타 학문분야는 62.4%로 그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우리 학문분야의 문헌 이용은 단행본과 학술잡지를 비교적 고루 이용하고 있는 반면 타 학문분야의 경우는 단행본과 학술잡지 이용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타 학문분야의 이론이나 지식을 접목함에 있어 최신 이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보다는 정립된 이론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매체를 통하여 우리 학문분야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행본의 주제별 인용 분포는 사회과학(46.5%), 역사(31.2%), 언어(8.9%), 총류(4.9%), 철학(4.4%), 문학(1.6%), 종교(1.4%), 예술(0.7%),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이 각각 0.2%의 순으로 인용되었다.

2.4 간행시기별 이용 분포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연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문분야 및 타 학문분야의 발견이나 연구 결과에 접근하고 인용할 때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간행시기 마다 어떤 이용 비율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정보학영역 문헌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문헌정보학분야 문헌의 간행시기별 분포는 1-5년(32.7%), 6-10년(25.7%), 11-15년(14.4%), 출판 당해 연도(4.1%), 21-25년(3.9%), 26-30년(2.8%), 50년 이상(2.8%), 31-35년(2.5%), 출판연도 불명(1.2%), 36-40년, 41-45년이 각각 1.9%의 순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10건의 문헌 중 6건 이상이 간행 후 10년이 넘지 않은 문헌이며, 간행 후 5년이 넘지 않은 문헌은 36.8%이다.

간행 후 10년이 넘지 않은 문헌의 주제별 비율은 자료 수집·정리(22.4%), 문헌정보학 일반(16.9%), 도서관 봉사(11.6%), 서지학(11.2%), 정보과학(11.1%), 도서관 경영·관리(9.2%), 도서관 행정·재정과 각종 도서관이 각각 7.6%, 독서·정보센터 이용(1.6%), 도서관 시설(0.8%)의 순으로 인용되었다.

(2) 타 학문영역 문헌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타 학문분야 문헌의 간행 시기별 분포는 1-5년(24.4%), 50년 이상(14.8%), 6-10년(14.6%), 11-15년(8.9%), 16-20년(8.4%), 간행 당해 연도 인용이 8.1%, 21-25년(5.9%), 간행연도 불명(3.4%), 36-40년과 46-50년이 각각 2.5%, 26-30년과 41-45년이 각각 1.9%의 순으로 인용되었다. 타 학문분야의 경우에는 간행 후 10년이 넘지 않은 문헌의 인용은 47.1%이다. 이것은 문

헌정보학분야의 이용 분포가 간행 후 10년 이내에 집중(62.5%)되어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타 학문분야의 문헌을 이용하는데 10년 이내의 최신 정보보다는 10년 이상 경과된 정보를 문헌정보학 연구 활동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언어별 이용 분포

연구자들이 특정 언어로 기술되고 간행된 문헌을 집중적으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서 효율적 정보관리 활동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언어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헌정보학영역 문헌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 결과를 획득하고 발표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인용한 우리 학문분야 문헌은 영어 문헌이 가장 많고(53.8%), 다음이 한국어(33.0%), 일본어(11.0%), 중국어(1.5%), 프랑스어(0.4%), 독일어(0.3%)의 순이다. 즉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된 문헌을 집중적으로(97.8%) 인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어 문헌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문헌정보학 연구와 출판활동의 세계적 중심지가 미국이고, 특히 우리나라가 초창기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문헌정보학을 도입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 대상 기간의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이 아직도 이론에 빈곤하고 연구 방법론의 비 과학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 외국이론에 의존해온 결과로 판단된다.

(2) 타 학문영역 문헌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타 학문분야 문헌의 언어별 분포에 대한 순위는 한국어(55.9%), 영어(34.2%), 일본어(6.6%), 중국어(2.7%), 프랑스어(0.7%)의 순이다. 이것은 우리 학문분야 문헌의 이용 분포에 비해 타 학문분야가 자국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결론 및 후속 연구

본 연구는 서양의 문헌정보학 이론이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에 도입되어 어떻게 적용되어 발전 발전하였는가를 밝히는 것과 아울러 타 학문분야의 이론이 어떤 경로로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에 접목되어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예비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1970년부터 1980년까지를 조사 대상 기간으로 선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조사 대상 학술지에 인용된 1,865건에 대한 문헌의 주제, 문헌의 종류, 간행시기, 언어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서 얻은 주요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장서개발, 자료조직, 서지통정, 문헌정보학 이론, 서지학, 도서관 봉사 등 도서관의 효

율적 운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우선하여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학문분야의 경우는 사회과학과 역사분야의 연구결과와 이론을 집중 적용하였으며, 문헌정보학 관련 학문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하는 문헌의 종류는 단행본과 학술잡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우리 학문영역의 문헌 인용은 단행본과 학술잡지를 고루 이용하고 있는 반면 타 학문분야 문헌의 이용은 단행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우리학문분야 문헌의 경우 간행된 지 10년 이내의 문헌을 집중 이용하고 있으며, 타 학문분야는 10년 이상 경과된 정보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4)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우리 학문분야의 경우 영어, 한국어, 일본어 문헌을 집중 이용하고 있으며, 타 학문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문헌의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향후 진행할 후속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조사를 통하여 조사 대상 기간을 시대별로 구분하고, 시대별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의 사회적 배경 및 교육적 배경을 조사한다.

(2) 조사 대상 기간 동안의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 논문의 주제 및 시기별 분포를 조사한다.

(3)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우리 학문분야 서양 문헌과 타 학문분야 문의 주제 및 시기별 분포를 조사한다.

(4)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인용한 우리 학문분야 서양 문헌의 주제 및 저자를 근거로 우리 나라 연구자 집단을 조사한다.

(5) 조사 대상 논문에 인용된 저자 및 주제와 인용한 저자 및 주제와의 관계는 과학인용색인(Science Citation Index)의 형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인용색인을 작성한다.

Lyle, Guy.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New York: Wilson, 1949).
도서관 경영·관리.
손정표. 각국 대학도서관 장서구성 기준의 비교 고찰, 1975. 장서개발.
고성수. 지정도서제도에 관한 연구, 1977. 열람봉사.
최달현, 손정표. 실험대학 과제도서실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1978. 열람봉사

상술한 내용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예상된다.

(1)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은 사회 및 교육적인 필요성에 의해 서양의 문헌정보학을

도입하였고 발전되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의 연구 논문에 대한 시대별 연구 동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 서양 문헌정보학 및 타 학문분야의 이론이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에 어떤 과정으로 도입되어 발전하였는지에 대한 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4) 서양 문헌정보학 연구자에 대한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 집단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이 서양에서 도입되어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타 학문분야의 이론이 우리 학문분야에 접목되는 과정을 체계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기간동안의 우리 나라 문헌정보학 인용색인(Citation Index)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은 본 연구와 관련한 후속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